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규에 의거하여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관람객님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알림, 정정 혹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아래 항목에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용됩니다.

〈개인정보항목〉

성명 :

주소 :

연락처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 이용목적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2018년 8월13일~8월28일
까지의 관람객 중 응모행사에 참여해서 선정된 50분에게
택배로 도서를 보내드리고자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8년 8월 일

관람객명 :

서명 :

석화정 교수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를 졸업,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일본 슬라브연구센터 객원연구원과 미국 하와이 대학 방문교수
등을 지냈고, 한양대학교 강사,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겸임교수,
공군사관학교 인문학과 역사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지금은 풍자화를
통해 역사를 쉽게 풀어내는 역사 저술에 전념하고 있고요.

구한말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와 유럽의 국제관계를 종합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고, 영문 일문 저서를 잇달아
출간하는 등 역사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2016년 국제인명센터와, 2016, 2018
년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되었어요.

참고로 '마르퀴즈 후즈 후'는 미국인명연구소, 국제인명센터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의 하나로 1899년 이래 과학과 공학,
예술,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보인 인사를 선정,
올리고 있습니다.

풍자화를 통해 역사를 쉽게 풀어낸 저서로는,
〈풍자화로 보는 러일전쟁〉 〈풍자화로 보는 세계사: 1898〉가
있어요.

어려운 역사?
풍자화로 보면 쉽다!

석화정의 풍자화로 보는 역사이야기



전시기간

2018. 8.13.(월) ~ 8.28.(화)
(일요일 휴관)

전시장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1층 갤러리 초아

작가와와의 대화

2018. 8.21.(화) p.m.7:00
선착순 50명 풍자화 도서 증정



1. 왜 풍자화일까요?

한 장의 그림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는 때로는 장문의 글을 능가합니다. 강렬한 그림이나 사진 한 장의 위력은 대단하지요. 바로 신문 만평 같은 풍자화가 그런 위력을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림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풍자화들이 전시되어 있나요?

구한말 시대에 미국, 일본, 유럽의 일간지와 시사 잡지에 실린 풍자화 가운데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50점을 선별하여 전시합니다.

3. 그림만 봐도 역사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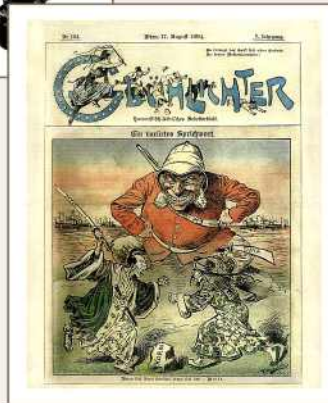
100여 년 전의 신문에 나온 내용들이라, 그림만 봐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석화정교수의 현장 중계 같은 사실적이고 쉬운 해설도 각각의 그림과 함께 전시되어 있으니, 관람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새 역사공부가 저절로 되고 있을 거예요.



4. 전시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1876년 개항 이후 1910년 일본의 한국 병합 이전까지의 한국 근대의 국제관계를 5부로 나누어 보여드립니다.

- 제1부 개항과 더불어 제국주의 패권 경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한반도 : 강화도조약 / 임오군란 / 거문도사건 / 한러밀약
- 제2부 청일전쟁
- 제3부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 제4부 러일전쟁
- 제5부 헤이그밀사사건



풍자화로 풀어보는 생생 역사 퀴즈

아래 퀴즈의 답을 맞히고, 감상평을 적어주시는 분들 중 50분을 선정하여 풍자화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뒷페이지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셔야 응모가 가능합니다.)



1. 역사의 생생한 현장과 역사의 지혜와 지침이 듬뿍 담겨 있는 이 전시회의 50점에 달하는 자료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2. 1887년 한반도는 청, 일본, 러시아의 상호견제의 한 가운데 있다. 어느 편에 가장 가깝게 놓여 있다. 그건 무엇을 의미 할까요?
3. 각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큰 나라와 그 동물은 무엇일까요?
4. 동근 지구본 위에서 조선의 선비가 생존을 위해(열강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는 추는 그림에서 원팔을 위로 잡아당기는 건 어느 나라일까요?
5. 러일전쟁을 체급이 다른 레슬러의 게임으로 바라본 그림에서 러시아인의 원팔과 일본인의 원팔이 가리키는 지명은 어디 인가요?
6. 감상 '석화정의 풍자화로 보는 역사이야기'의 전시를 보신 감상을 적어주세요.